

연변시인협회 시총서
시향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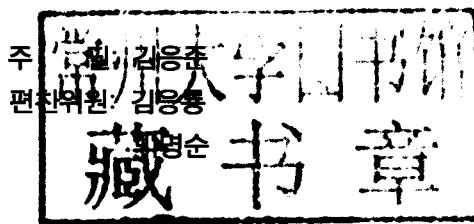
고향집뜨락

제5호
2010

연변인민출판사

연변시인협회 시총서 《시향만리》 제5호

고향집뜨락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石 华

责任校对：崔顺兰

技术设计：郑善淑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故乡庭院：朝鲜文 / 金应俊等著。—延吉：延边人民出版社，2010. 7
ISBN 978-7-5449-1225-9

I. ①故… II. ①金… III. ①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0）第136039号

故乡庭院

出版：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延边人民出版社

开本：880×1230 1/32 印张：10 字数：270千字

标准书号：ISBN 978-7-5449-1225-9 （民文）

版次：2010年7月第1版 2010年7月第1次印刷

印数：1-300册 定价：20.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影响阅读，请与印刷厂联系调换。

차 례

제1부 김영능시인특집

대표시 10수

태산에 올라	3
나무혹	4
빨래줄	5
감자눈	6
기차역	7
뿌리	8
두부	8
잔디	9
갈대	10
함박눈	11

고향집시초(신작시)

고향집뜨락	12
버치	13
방아	14
오솔길	16
울바자	17

매돌 1	18
매돌 2	19
쪽지게	19
굴뚝	20
빨래돌	22
황소	23

시인탐방

시와 시인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좋다는 사람… 김동진 24

제2부 신작시

1. 깊어가는 향기

바다와 쇠망치(외 2수)	설인 33
꽃과 전쟁(외 2수)	김철 36
우리 집 가축(외 2수)	리상각 39
어곡전(외 2수)	김용준 41
여울(외 1수)	김운일 44
미처 몰랐습니다(외 1수)	리선호 46
겨울산	한동해 49
천불지산에서(외 1수)	심정호 51
산(외 1수)	채관석 54
비수는 살아있다(외 2수)	김동진 56
빤질빤질한 달이 뜬 밤에(외 2수)	최룡관 59
하늘(외 1수)	김철학 62
저수지(외 2수)	김용룡 64

차 례

어곡전에서(외 1수)	오정복 67
산(외 1수)	전춘식 70
렬사비의 굴절(외 1수)	전병칠 72
수석시 3수	김학송 76
보타산(普陀山)인상(외 2수)	김학천 77
물(외 2수)	김철호 81

2. 무성한 술

록차밭에서(외 2수)	리임원 84
눈 오는 밤 걷고싶다(외 1수)	김일량 87
고목(외 1수)	조민호 89
우리네 김씨(외 2수)	정호원 91
사부곡(思父曲)(외 2수)	박장길 94
돌이 아니라서(외 2수)	김인덕 98
바람의 산책(외 2수)	김경희 101
창(외 1수)	리순옥 104
격산지애(외 2수)	송미자 106
봄물(외 1수)	김미화 110
회전문(외 2수)	심예란 112
배추(외 1수)	박명순 115
시 옳은가?(외 2수)	김영춘 118
4월의 봄(외 2수)	정두민 121
차(茶)(외 1수)	박춘월 124
진달래	조봉산 126
꽃	황순자 127
오솔길	신현준 128
봄바람	김은철 129
기을	박영옥 130

사연 하나	홍복녀	131
모기야, 네게 나는 다만 속이 빨간 주스통이니(외 1수)	박통길	132
메주(외 1수)	황정인	134
숙명(외 1수)	강설옥	136
박넝쿨(외 1수)	려순희	138
언어	연영미	140

3. 나래 펴는 푸름

괜찮냐고 묻지 마세요	강통길	142
설매(雪梅)	리위	143
눈물	차소선	144
흰 눈	김해령	145
겨울	송련화	146
술의 성별	유린식	147
누릉지	함령미	149
이슬속 흐르는 바람처럼	권려나	151
한 겨울날의 사미인곡	리광원	153

제3부 오로라가 드리운 하늘아래

시집을 읽으며(외 2수)	강효삼	157
겨울산(외 3수)	한춘	160
슬픈 리유(외 2수)	리창현	163
먹이 위해 살지 않는 날(외 3수)	리홍규	166
내가 그림이 되는건(외 2수)	최화길	170

차례

무우	윤영애	173
창을 마주하면(외 2수)	장련춘	174
집과 술집과 외딴 초가집	한영남	178
나는 어느 시대의 유물인가 하고 썼던 어느 시인의 시 를 떠올리며(외 3수)	조광명	185

제4부 백사장에 그리는 피도소리

그저 한때였어라(외 1수)	박경상	195
별세상과 나(외 1수)	박병대	197
한미성커피점에서	리문호	199
고드름	김룡호	201
산딸기	김명근	202
봄은 소리없이 다가오는데	김일수	203
너를 위한 아가(雅歌)	김은옥	204
가을편지	김옥화	206
대록도풍경	김창영	207
노래방스케치	김희자	208
눈 오는 겨울에는(외 1수)	로춘애	209
가을나비	류광순	212
민들레꽃	박재근	213
터지는 꽃망울	정홍란	215
바람 한점 없는데	차옥순	216
퇴마루에 아버님 신발 놓아둡니다	편도현	217
압록강단교(斷橋)	허형행	219
북은 덤불	홍원	220

무제(외 1수)	박애자 221
출국	리영 223

제5부 지평선너머 하늘끝까지

1. 카나다동포시인특집

들꽃으로 살으리(외 2수)	리유식 227
괜찮아요(외 2수)	리원배 232
희생(외 2수)	박충선 236
민들레의 노래(외 1수)	박성민 240

2. 한국시인특집

그리운 사람(외 1수)	서종택 244
냉이꽃(외 1수)	박정남 246
국화빵(외 1수)	서지월 248
적들을 위한 서정시(외 1수)	허혜정 250
바닥(외 1수)	강해림 254
물결무늬(외 1수)	김환식 257
담쟁이(외 1수)	최광임 260
초생달(외 1수)	백자인 263
어머니의 상형문자(외 1수)	임유화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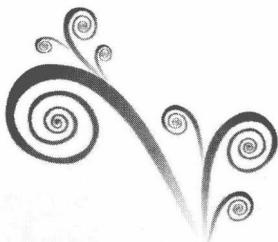
차 례

제6부 감상과 평론

1. 중국 현대시 감상(1)	269
2. 한국인이 애송하는 사랑시(1)	279
3. 당대시의 발전 및 직면한 문제	엽연빈 298
편집후기	308

제1부

김영능시인특집



대표시 10수

고향집시초(신작시)

시인탐방

대표시 10수

태산에 올라

안개 타고 남천문에 올라서니
중천문 삭도 은하수 쪽배런가
아찔한 벼랑사이 곧게 솟은 돌층계
하늘로 오르는 신선길 아닌가
천궁에서 내린 사다리가 틀림없다

달빛 밟고 옥황정에 올라서니
오강의 도끼소리 귀전을 울리고
상아가 담아놓은 계화주 향기 질어
손들어 월궁문 두드리려니
이웃집 견우직녀 단잠 깨가 두려워라

이른아침 일광정에 올라서니
발밑의 구름 불바다 같은데
당승네 주춤하던 서천길목 예 아닌가
떠오르는 아침해 천도복숭아
손대성 나타나면 한번 겨뤄보련다

1991년 4월 16일 태산에서

나무혹

유정하다는
인간에게서
받은 상처

무정하다는
비바람이
아물린 허물

고통은
기구한
년륜을 새기고

아픔은
기이한
무늬를 엮으니

겉보기
흉하다
흉보지 말라

뼈저린
속차림
굳세고 이쁘다

빨래줄

주어진 운명
마주선 연분
쇠사슬로 엉킨
차거운 인생
다진 언약 굳세다

아찔한 협곡
외줄타기
세상살이
손목 잡고
함께 가는 험한 길

세상도 세척하고
인심도 다듬어
땀물
눈물 짜내며
깨끗이 살자 하네

감자눈

칼부림에

산산조각

토막난 몸

거름과 함께

캄캄한 땅속

매장당한 운명

생의

끌머리

마지막 순간에도

나머지 피와 살

삶의 뜻

뻗치니

암흑을

헤치고

푸름으로 치솟아

지옥에서도

자기만은

되찾는다

주먹같이 못난

내 모양

내 모습

기차역

도회지 변두리

산촌 동구밖

바래고 맞으며

지치여 서있다

길고 머언 인생길

토막토막

붉은 얼굴 푸른 얼굴

눈치 살피며 서있다

기쁨과 슬픔의

두가닥 피줄기

모였다 갈라지는

삶의 소용돌이

오면서 가면서

길게 뽑는 투정질